



■ 2018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 회복(RECOVERY)

- ① 회복(Recovery), 그러나 체감하지 못하는 회복
- ② 수출산업(Exporting industry) 내 디커플링
- ③ 중국(China)향(向) 산업의 소식(蘇息)
- ④ 경제 공동화(Hollowing-Out of Economy)
- ⑤ 제2의 벤처(Venture) 붐
- ⑥ 공급과잉산업(Excess supply industry)과 치킨게임
- ⑦ 건설업과 연관산업의 위기(Risk)
- ⑧ 4차 산업혁명과 젊은산업(Young industry)

목 차

■ 2018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 회복(RECOVERY)

Executive Summary	i
1. 2018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1
2. 2018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	3
3. 시사점과 대응방안	15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이 사 대 우 (02-2072-6235, juwon@hri.co.kr)

신 유 란 연 구 원 (02-2072-6240, yooran0111@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8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 회복(RECOVERY)

■ 2018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회복(RECOVERY)』을 제시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2018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을 나타내는 각 핵심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이다.

■ 2018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

① 회복(Recovery), 그러나 체감하지 못하는 회복

2018년 전반적인 산업경기는 회복 분위기가 감지되나 수출 산업이 아닌 내수 산업은 체감하지 못하는 경기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수출 부문 생산 증가율이 내수 부문 생산증가율을 다시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국민계정 기준으로 2014~17년까지의 기간에는 수출증가율이 내수증가율을 하회). 그러나 2018년에 들어서는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출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수출산업 회복의 내수산업으로의 낙수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보여 수출증가율이 내수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출시장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수출/생산 비중 63.1%)이 서비스업(24.5%)과 건설업(0.7%)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② 수출산업(Exporting industry) 내 디커플링

전반적인 수출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 내에서 업종별 수출지역 의존도에 따라 경기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요 증가 속도가 확연히 구분되는데, 선진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은 하락하는 반면 개도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수출산업중 개도국 수출 비중이 높은 IT(개도국 수출비중 87%), 유화(80%), 기계(68%), 가전(67%) 등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반면 대 개도국 수출비중인 낮은 철강과 자동차에는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중국(China)향(向) 산업의 소식(蘇息)

2018년 중국의존도가 높은 수출산업과 기업은 ‘소식(蘇息)’ 즉 ‘잠깐 숨통이

트이는 수준'의 회복세가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중국 경제의 중간재 수요 확대, 사드 문제의 해결 등에 힘입어 2016년과 2017년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대중국수출증가율이 낮았던 현상이 역전되면서 대중국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IMF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6.7%에서 2020년에 6.2%로 하락하고 이후에는 5%대로 하락할 것을 전망).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입 둔화와 최종재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대 중국 수출이 한계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경제 공동화(Hollowing-Out of Economy)

국내(설비)투자의 약 30% 규모가 매년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시장의 협소성, 생산비용 급증, 반기업 정서 등의 요인이 증첩되면서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초반 국내(설비)투자의 10% 수준에 불과했던 해외투자는 최근 30%를 상회하면서 국내투자 여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향후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등의 고용시장에서의 임금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사회 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해외투자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단계 성숙화와 국내외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할 경우, 과거 90년대의 IT 산업처럼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신성장 산업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내 해외투자 규모는 국내 투자의 40~5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최근 해외투자가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에서 '경제 공동화'로 확산될 우려가 존재한다. 서비스업은 내수와 고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서비스업마저 한국시장을 탈출할 경우 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반 자체가 사라짐을 의미하기에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된다.

⑤ 제2의 벤처(Venture) 붐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벤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벤처기업수는 2017년 10월 현재 3만 4,954개로 10년 전의 1만 3,000여개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벤처투자/GDP 비중은 2015년을 기준으로 0.13%로 미국의 0.33% 및 중국의 0.24%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벤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최근 정부는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제2의 벤처 붐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공급과잉산업(Excess supply industry)과 치킨게임

2018년에도 조선업과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치킨 게임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선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8년에도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철강설비 가동률도 이전 호황기의 80% 수준에 한참 미달되는 6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수요가 증가하여도 과잉생산능력이 경기 회복을 상당 기간 지연시킬 우려가 높다. 특히 만약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회복의 기회를 이용하여 경쟁국가와 경쟁기업들의 시장퇴출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추구할 경우, 치킨 게임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⑦ 건설업과 연관산업의 위기(Risk)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건축 부문 부진과 SOC 예산 급감에 따른 토목 부문 침체의 이중고(二重苦)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2018년 국내 산업중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 부문은 가계 부채 구조조정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약화되면서 건축 부문 경기가 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토목 부문은 SOC 예산의 대폭 삭감과 향후 5년 동안 삭감 기조가 예고되어 있어 장기 불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8년은 건축과 토목 부문의 동반 침체가 예상되는 바 건설기업들의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업에 중간재나 자본재를 공급하는 건자재, 건설기계, 운송기계 등의 산업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⑧ 4차 산업혁명과 젊은산업(Young industry)

기존의 주력산업 대부분이 성숙기에 접어든 반면 최근 대두되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젊은산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수출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산업 발전 단계상 성숙기에 접어들어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위치기반서비스, 빅데이터 등 신기술들이 빠르게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 및 사업 모델을 파괴하는 「젊은산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기존의 산업 및 사업 영역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기반을 가진 산업과 기업들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보여, 국내 산업계에 활력과 혁신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시사점

2018년은 전반적인 산업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나 충분한 시장수요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별로 경기 격차가 크게 벌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경로 구축과, 산업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시 지표보다 산업 지표를 예의주시하면서 민간의 체감경기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눈높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대외여건 개선의 효과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수출경기 회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장접근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중국을 신흥국이 아닌 중성장·중진국 경제로 인식하고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제조업 공동화’에서 ‘경제 공동화’로 확대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아니면 사회적 반기업 정서의 확산이나 정부의 기업정책 때문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2의 벤처 붐 조성과 창업 활성화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글로벌 공급과잉 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일곱째, 건축 수주 급감을 방지하고 SOC 예산 재조정을 통해 경제가 ‘건설투자 절벽’ 충격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덟째, 주력 산업의 성숙화에 따른 역동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젊은 산업’의 발굴과 관련 시장의 적극적 육성이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제시하는 2018년 산업경기 키워드

R	① 회복(Recovery), 그러나 체감하지 못하는 회복
E	② 수출산업(Exporting industry) 내 디커플링
C	③ 중국(China)향(向) 산업의 소식(蘇息)
O	④ 경제 공동화(Hollowing-Out of Economy)
V	⑤ 제2의 벤처(Venture) 붐
E	⑥ 공급과잉산업(Excess supply industry)과 치킨게임
R	⑦ 건설업과 연관산업의 위기(Risk)
Y	⑧ 4차 산업혁명과 젊은산업(Young industry)

1. 2018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회복(RECOVERY)』을 제시함

- 이는 다음과 같은 2018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을 나타내는 각 핵심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임

① 회복(Recovery), 그러나 체감하지 못하는 회복

· 2018년 전반적인 산업경기는 회복 분위기가 감지되나 수출 산업이 아닌 내수 산업은 체감하지 못하는 경기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

② 수출산업(Exporting industry) 내 디커플링

· 전반적인 수출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 내에서 업종별 수출지역 의존도에 따라 경기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③ 중국(China)향(向) 산업의 소식(蘇息)

· 2018년 중국의존도가 높은 수출산업과 기업은 ‘소식(蘇息)’ 즉 ‘잠깐 숨통이 트이는 수준’의 회복세가 전망

④ 경제 공동화(Hollowing-Out of Economy)

· 국내 (설비)투자의 약 30% 규모가 매년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시장의 협소성, 생산비용 급증, 반기업 정서 등의 요인이 증첩되면서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한편 최근 해외투자가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에서 ‘경제 공동화’로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

⑤ 제2의 벤처(Venture) 붐

·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벤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⑥ 공급과잉산업(Excess supply industry)과 치킨게임

· 2018년에도 조선업과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치킨 게임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⑦ 건설업과 연관산업의 위기(Risk)

·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건축 부문 부진과 SOC 예산 급감에 따른 토목 부문 침체의 이중고(二重苦)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2018년 국내 산업중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

⑧ 4차 산업혁명과 젊은산업(Young industry)

· 기존의 주력산업 대부분이 성숙기에 접어든 반면 최근 대두되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젊은산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2018년 산업경기 키워드 : 회복(RECOVERY)

- ① 회복 (Recovery), 그러나 체감하지 못하는 회복
- ② 수출산업 (Exporting industry) 내 디커플링
- ③ 중국 (China)향(向) 산업의 소식(蘇息)
- ④ 경제 공동화 (Hollowing-Out of Economy)
- ⑤ 제2의 벤처 (Venture) 붐
- ⑥ 공급과잉산업 (Excess supply industry)과 치킨게임
- ⑦ 건설업과 연관산업의 위기 (Risk)
- ⑧ 4차 산업혁명과 젊은산업 (Young industry)

2. 2018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

① 회복(Recovery), 그러나 체감하지 못하는 회복

○ 2018년 전반적인 산업경기는 회복 분위기가 감지되나 수출 산업이 아닌 내수 산업은 체감하지 못하는 경기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18년 수출 부문 생산증가율이 내수 부문 생산증가율을 다시 상회하고 수출 관련 산업 생산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수 관련 산업 경기도 시차를 두고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그 수준은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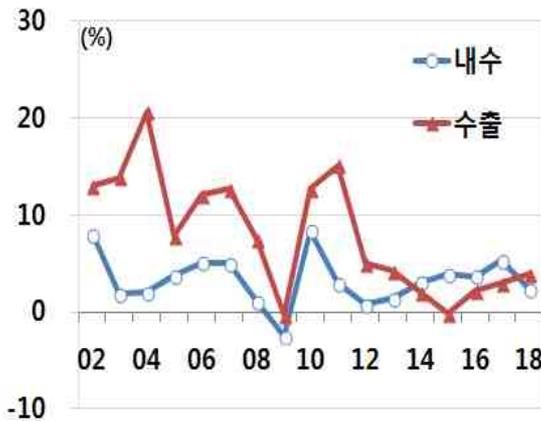
-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통상 수출증가율이 내수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2014~17년까지의 기간에는 수출증가율이 내수증가율을 하회함
- 일반적으로 내수시장 성장보다 세계시장의 성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수출증가율이 내수증가율보다 높은 것이 정상적임
- 그러나 최근 4년 동안(2014~17년) 수출증가율이 내수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세계시장과 국제교역이 유례없는 불황 국면을 보였기 때문임
- 2018년은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출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수출산업 회복의 내수산업으로의 낙수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보여 수출증가율이 내수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수출시장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의 성장세가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이나 건설업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외 및 내수시장 의존도를 계산하면, 우선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시장 의존도는 44.2%로 나타남
- 한편 이를 산업군별로 구분하여 보면 제조업이 63.1%의 해외시장 의존도를 가지며, 서비스업은 24.5%, 건설업은 0.7%의 해외시장 의존도를 가짐
- 내수 경기보다 수출 경기 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 나머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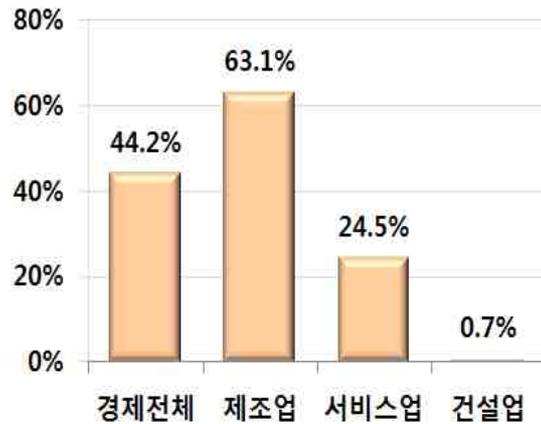
의 생산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한국 수출 및 내수 증가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내수¹⁾는 총소비 + 총투자.

< 산업군별 산업내 수출 비중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4년 산업연관표를 이용²⁾.

② 수출산업(Exporting industry) 내 디커플링

○ 전반적인 수출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 내에서 업종별 수출지역 의존도에 따라 경기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2018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요 증가 속도가 확연히 구분되는데, 선진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은 하락하는 반면 개도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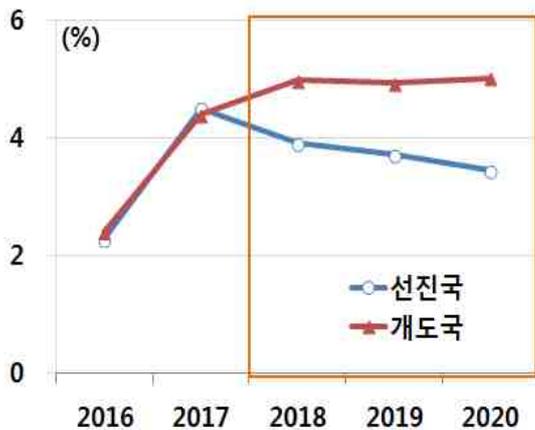
- 선진국 수요 증가율 하락은 최근 선진국 경기 회복을 주도해 온 미국 경제의 자연스러운 경기 하강 국면으로의 진입과 유럽 경제의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제성장 속도가 그 원인으로 판단됨
- 반면 개도국 수입수요 증가율의 확대는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도, 아세안 지역 등이 개도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1) 2017년은 1~3분기 기준이며, 2018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를 이용.

2) 중간수요에 대해서는 1차 전방효과를 사용하였으며, 최종수요에 대해서는 내수는 소비, 투자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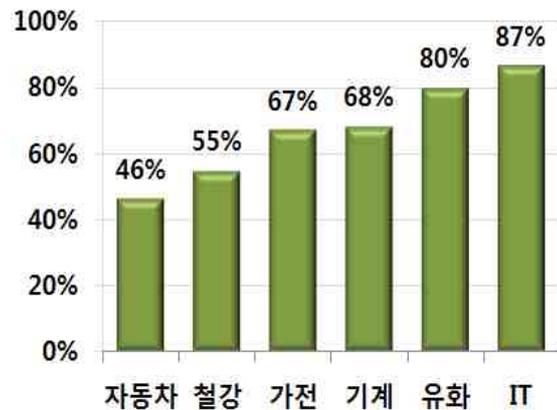
- 특히 많은 개도국들의 생산구조가 경제발전 단계상 중간재 및 최종재 모두에서 자급률이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수입수요 탄성치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수출산업중 개도국 수출 비중이 높은 IT, 유화, 기계, 가전 등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됨
 - 주력 수출 산업별로 보면 IT 산업이 IT 산업의 총수출에서 대 개도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약 87%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이외 유화(80%), 기계(68%), 가전(67%) 등이 비교적 높은 대 개도국 수출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철강과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선진국 및 개도국 상품 수입수요 증가율 >



자료 : IMF.
주 : 2017년 이후는 IMF 전망치.

< 주요 산업별³⁾ 대 비OECD 수출 비중(2017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무역협회 통계상 2017년 1~9월 기준.

③ 중국(China)향(向) 산업의 소식(蘇息)

- 2018년 중국의존도가 높은 수출산업과 기업은 수요 회복으로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이는 ‘소식(蘇息)’ 즉 ‘잠깐 숨통이 트이는 수준’으로 중장기 중

3) 산업 구분은 MTI코드 기준 석유화학 21, 철강 61, 자동차 741, 기계 71+72+73, 가전 82, IT 812+813+831+8361업.

국시장의 정체와 중국시장 내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른 어려운 국면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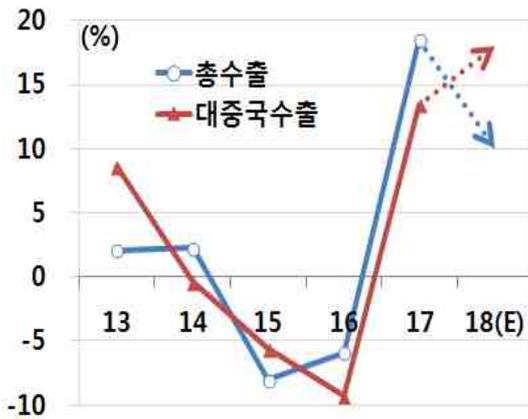
-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중국 경제의 중간재 수요 확대, 사드 문제의 해결 등에 힘입어 한국의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 수요에 의존하는 바가 큰 중국경제는 2018년에 들어서 수입수요와 수출수요가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임
- 특히 한중간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로 인한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낮았던 현상이 역전되면서 대중국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될 전망임

-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중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제약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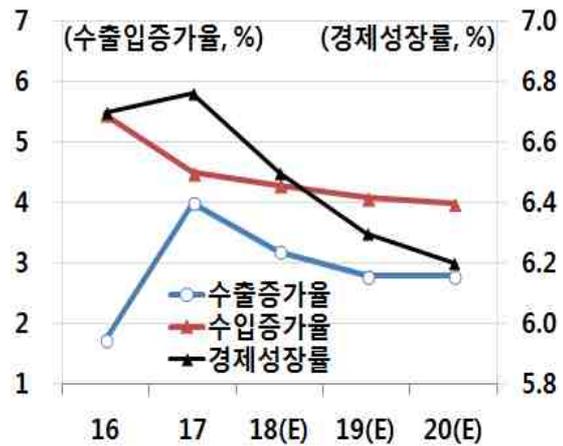
- 중국 경제의 고성장 국면이 종결되고 향후 중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이는 대규모 개방경제 국가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IMF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6.7%에서 2020년에 6.2%로 하락하고 이후에는 5%대로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음
- 이 성장률 둔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중국의 수출의존도는 낮아지고 핵심 중간재에 대한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교역 의존도 자체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됨
- 이는 중국의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입 둔화와 중국내 최종재의 자급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한계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대중국수출 증가율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산업부.
 주1) 2017년은 1~9월 기준.
 2) 2018년은 추정치.

< 중국 수출입 물량 증가율(재화) >



자료 : IMF.

④ 경제 공동화 (Hollowing-Out of Economy)

○ 국내 투자의 약 30% 규모가 매년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시장의 협소성, 생산비용 급증, 제도적·사회적 경영 환경 악화 등의 요인으로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으로 자본 유출이 확산되는 '경제 공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연간 약 3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

- 해외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2005년 약 50억 달러에서 2006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계속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함

-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 국내(설비)투자의 10% 수준에 불과했던 해외투자는 최근 30%를 상회하면서 국내 투자 여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남

- 최근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 단계와 국내 및 해외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할 경우, 과거 90년대의 IT 산업처럼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는 신성장 산업이

출현하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 내 해외투자 규모는 국내 투자의 40~5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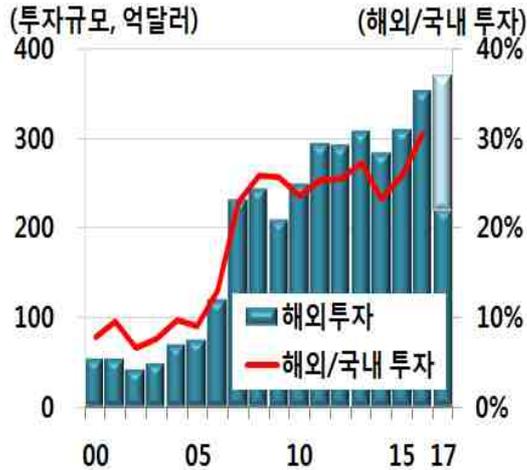
- 해외투자 증가는 국내 고비용 생산구조와 국내 내수시장의 협소성 및 경쟁 심화 등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투자 확대의 가장 큰 동기는 국내 고비용 생산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유발되는 측면이 높았음
- 그러나 이후에는 국내시장의 제한적 수요에 직면하여 해외시장 수요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임
- 향후 최저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 임금 등의 고용시장에서의 임금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해외투자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짐

- 한편 최근 해외투자가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에서 '경제 공동화'로 확산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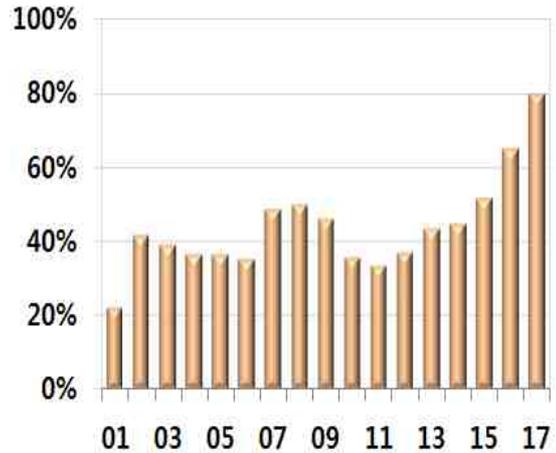
-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비교역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자본이동은 생산 비용의 문제보다는 '시장 규모'와 '제도적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게 됨
-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일정 부분은 제도적 경영환경의 악화 등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서비스업은 내수와 고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서비스업마저 한국시장을 탈출할 경우 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사라짐을 의미함

< 해외투자 추이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1) 투자금액 기준.
 2) 2017년은 연구원 추정치.

< 서비스업/전산업 해외투자비중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1) 투자금액 기준.
 2) 2017년은 연구원 추정치.

⑤ 제2의 벤처(Venture) 붐

○ 제2의 벤처 붐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벤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내 벤처기업수가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 기업 육성 노력이 미흡한 수준을 보임

- 국내 벤처기업수는 2017년 10월 현재 3만 4,954개로 10년 전의 1만 3,000여 개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함
- 또한 벤처기업은 활력을 잃어가는 국내 산업 및 기업 생태계에 혁신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벤처투자/GDP 비중은 2015년을 기준으로 0.13%로 미국의 0.33% 및 중국의 0.24% 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벤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됨⁴⁾

4) 중소벤처기업부(2017).

- 최근 정부는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제2의 벤처 붐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지원 확대」, 「민간주도의 벤처인증 시스템 도입」, 「조세혜택 부여」, 「사내창업 활성화 지원」 등의 네 가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함
 -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금융지원 확대」는 정부가 혁신모험펀드 10조 원과 신보, 기보, 민간금융사 등에서 20조 원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 「민간주도의 벤처인증 시스템 도입」은 기존 관(官) 중심의 벤처인증 제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벤처 확인 항목중 연구개발유형을 확대하고, 대출보증실적 확인 유형은 폐지할 계획임
 - 「조세혜택 부여」는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고 엔젤투자 및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임
 - 「사내창업 활성화 지원」은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R&D/사업화/마케팅에 대한 패키지 지원과 창업휴직제(실패시 재입사가능)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벤처기업수 추이 >



자료 : 벤처인.
주 : 2017년 9월말 기준.

< 정부의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

분야	내 용
금융 지원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신보, 기보, 민간금융사 대출20조원
벤처 인증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
	벤처투자연구개발유형 확대
	대출보증실적 확인 유형 폐지
조세 혜택	스톡옵션 비과세 10년 만에 재도입
	엔젤투자 및 우리사주 소득공제
사내 창업	R&D·사업화·마케팅 패키지 지원
	창업휴직제 도입(실패시 재입사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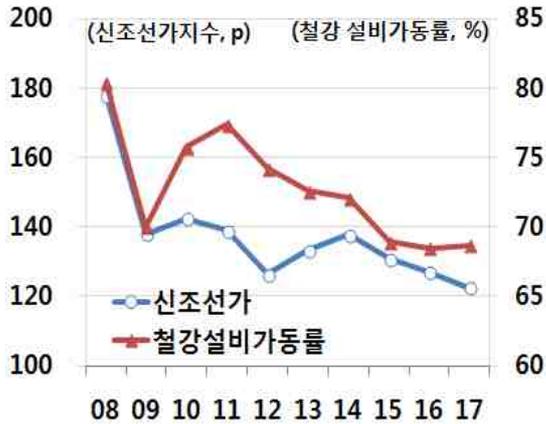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⑥ 공급과잉산업(Excess supply industry)과 치킨게임

- 2018년에도 조선업과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치킨 게임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2018년에도 조선업과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조선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8년에도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임
 - 신규로 건조되는 선박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신조선가는 호황기인 2008년의 수준보다 크게 하락하였음은 물론 최근까지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 철강설비 가동률도 이전 호황기의 80% 수준에 한참 미달되는 68%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조선업과 철강업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치킨 게임의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임
 - 특히 조선업과 철강업은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어 세계 수요가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증가하는 수요를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확보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현재 조선업은 신규수주량 기준으로 중국과 한국이 모두 글로벌 수요에 대해 3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치열하게 경쟁중임
 - 철강은 조강생산 기준으로 중국이 전세계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미국, 러시아에 이어 6위의 생산량을 기록중임
 - 세계 수요의 회복이 가시화되면 막대한 중국의 유휴설비가 가동이 되거나 신규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산업 경기는 외형상 성장하나 생산 단가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채산성 악화 문제가 심각해 질 가능성이 있음
 - 만약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회복의 기회를 이용하여 경쟁 국가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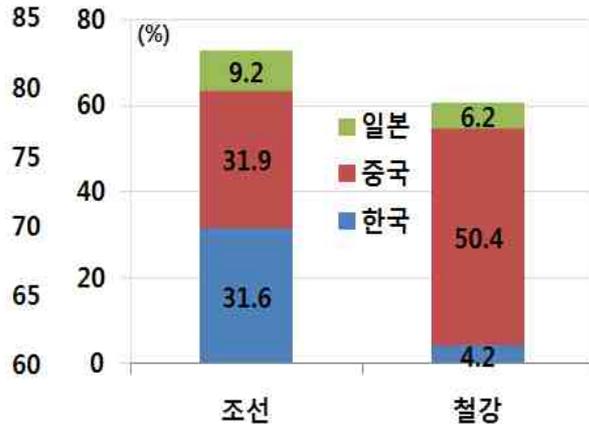
쟁 기업들의 시장 퇴출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추구할 경우, 치킨 게임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신조선가지수 및 철강설비가동률 >



자료 : Clarkson, OECD.

< 한중일 철강(조강생산) 및 조선(신규수주) 세계시장점유율 >



자료 : Clarkson, World steel.

주 : 철강은 조강생산량, 조선은 신규수주량

⑦ 건설업과 연관산업의 위기(Risk)

○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건축 부문 부진과 SOC 예산 급감에 따른 토목 부문 침체의 이중고(二重苦)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2018년 국내 산업중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

- 가계 부채 구조조정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약화되면서 건축 부문 경기가 하강할 것으로 예상됨

- 건축 부문 경기는 향후에도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가계 부채 축소 대책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이 차단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 부문의 경기 하강이 불가피해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 급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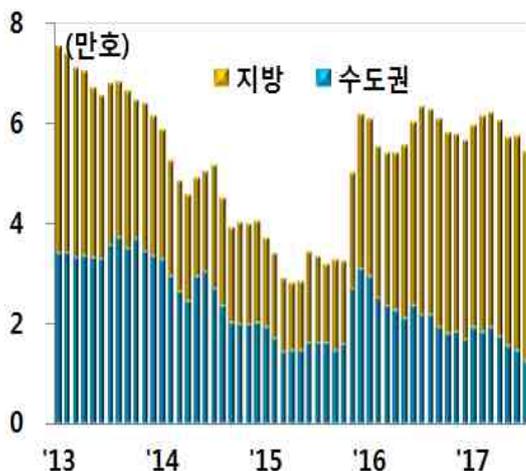
- 토목 부문도 유례가 드문 SOC 예산 삭감으로 불황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은 전년대비 7.1%인 반면, SOC 분야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0% 감소한 수준임
- 향후 현 정부 임기 내에도 전체 정부지출규모는 복지, 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연평균 5.8%의 증가가 계획되어 있으나, SOC 분야는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계획(정부 예산안 기준 기간 내 연평균 $\Delta 7.5\%$)임

- 따라서 2018년은 건축과 토목 부문의 동반 침체가 예상되는 바 건설기업들의 어려움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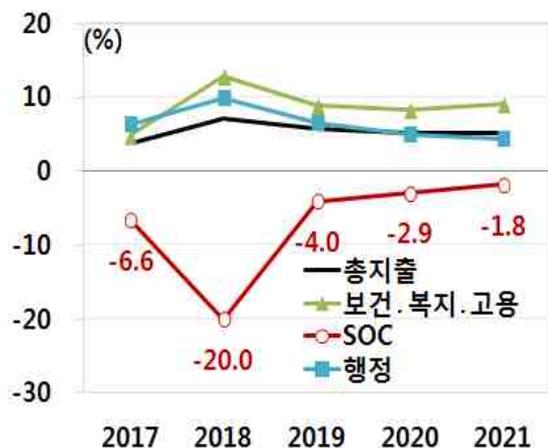
-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유동성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 다만 건축 부문은 기존 수주 물량이 소화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 하강은 2018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특히 건설업에 중간재나 자본재를 공급하는 전자재, 건설기계, 운송기계 등의 산업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지방 미분양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 주요 부문별 예산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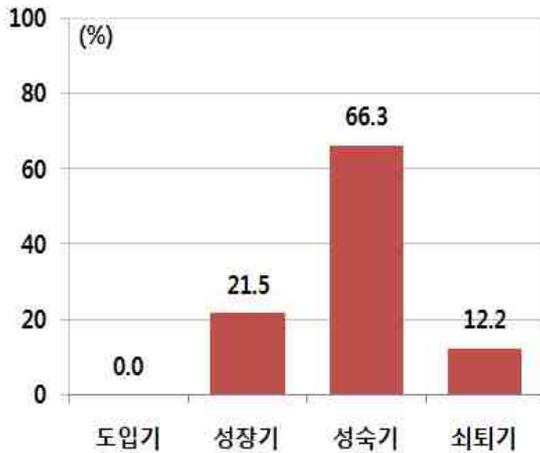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⑧ 4차 산업혁명과 젊은산업(Young industry)

- 기존의 주력산업 대부분이 성숙기에 접어든 반면 최근 대두되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젊은산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수출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산업 발전 단계상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
 - 국내 산업의 성장률과 시장점유율이 둔화되며 성숙기에 접어드는 모습임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13대 수출 주력제조업⁵⁾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6.3%가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응답함
 - 반면 성장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21.5%이며, 쇠퇴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12.2%에 불과함
 -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위치기반서비스, 빅데이터 등 신기술들이 빠르게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 및 사업 모델을 파괴하는 「젊은산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됨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터넷 플랫폼, 위치기반서비스, 빅데이터, 핀테크, 인공지능 등이 산업에 접목되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예를 들어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위치기반서비스인 카카오택시, 핀테크를 이용한 간편송금 토스(Toss) 등이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업 영역에 해당됨
 - 2018년에도 기존의 산업 및 사업 영역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기반을 가진 산업과 기업들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보여, 국내 경직되고 역동성이 약화된 국내 산업에 혁신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됨

5) 13대 수출주력제조업에는 가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이 해당됨.

< 13대 주력산업의 수명주기 인식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16), 「우리기업의 신사업 추진실태와 시사점 조사」.

< 국내 젊은산업 예시 >

기업명	내용
K뱅크 (금융)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모바일 기반 24시간 은행업무 가능
비바리퍼블리카 (금융)	금융기술(Fintech)을 바탕으로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Toss)를 개발, 운영
카카오 (IT서비스)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위치기반서비스 카카오택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미니 등 출시
타이탄 플랫폼 (IT서비스)	소프트웨어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스마트 콘텐츠 플랫폼 운영 및 스마트 홈 디바이스 제공
n3n (IT서비스)	IoT 시각화 업체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플랫폼 개발 및 솔루션 제공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 시사점과 대응방안

○ (시사점) 2018년은 전반적인 산업경기 회복국면의 도래가 예상되나 충분한 시장수요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업별로 경기 격차가 크게 벌어질 우려가 존재

- 이번 경기 회복기는 세계경제 회복에 힘을 얻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회복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임⁶⁾
- 수출산업 경기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극히 일부 산업만이 전형적인 경기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의 약화’ 문제로 수출산업에서 회복세가 강화되더라도 내수산업 경기는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6)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의 산업경기의 특징은 경기 사이클이 매우 짧은 특징을 보임.

- 특히 일부 공급과잉 산업의 경우에는 산업과 기업의 존립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상존함
 - 한편 정부의 창업 활성화 지원 정책이나 역동적이고 젊은산업의 등장이 우리 산업계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산업발전 재도약의 기회가 되어주기를 기대함
- (대응방안) 경기 회복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경로 구축과, 산업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이 요구

첫째, 거시 지표보다 산업 지표를 예의주시하면서 민간의 체감경기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눈높이 경제정책’ 이 필요하다.

- 최근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흑자 등의 거시 경제 지표의 흐름에 시선을 빼앗길 경우, 민간이 체감하는 경기와 동떨어진 경제정책이 나올 우려가 존재함
- 그보다는 산업별, 기업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부 정책 방향이 요구됨

둘째, 대외여건 개선의 효과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수출경기 회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장접근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빠를 것으로 예상하는 개도국 및 신흥국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업과 정부의 수출 전략이 선진국보다 이들 지역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응 전략은 하이엔드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나, 우리 기업들의 시장 안착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저부가 및 중·저기술의 틈새시장 공략에도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진행중인 3高(원高, 高금리, 高유가)의 현실화 가능성을 판단하고, 산업별 기업별 영향 정도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셋째, 중국을 신흥국이 아닌 중성장·중진국 경제로 인식하고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한·중 FTA 재협상을 통해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중국시장에서의 제3국 기업들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할 것임
 - 이는 최근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임
- 중국 기업에 중간재나 자본재를 수출하는 것은 점차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대중국 수출의 무게중심을 중국 국민들의 소비재시장으로 이동하는 공략 방법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중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롭게 부상하는 인도, 아세안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임

넷째, '제조업 공동화'에서 '경제 공동화'로 확대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인지, 아니면 사회적 반기업 정서의 확산이나 정부의 기업정책 때문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국내의 내수시장 성장의 한계와 고비용 경제구조를 감안한다면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대외수요를 확보(무역장벽을 우회하여 시장접근성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대세라고 판단됨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대립적

인 노사관계, 시장 및 투자 규제 등이 기업들의 해외투자 러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과거 기업들의 정경유착의 사례, 경영 과정상의 불투명성이 반기업 정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나, 정치권의 갈등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악용되어 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이 폄훼(貶毀)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음
- 끝으로 ‘공정한 시장질서의 추구’와 ‘기업활력 제고’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정 부분 상충관계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미래를 위해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함

다섯째, 제2의 벤처 붐 조성과 창업 활성화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의 공급과 수요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창업과 벤처 붐의 조성은 혁신의 확산 및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자 측면에서의 지원 정책의 취지에 공감함
- 그러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거 90년대 IT와 같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고 기술 접근성이 용이한 산업 분야가 존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창업 분야에 대한 발굴과 적극적인 유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과거 유사한 지원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누수(漏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살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임

여섯째, 글로벌 공급과잉 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된다.

- 세계경제의 회복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적인 글로벌 과잉공급 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특히 한·중간 경합이 치열하면서 과잉생산능력이 문제가 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내외 여건과 기업의 잠재력을 판단하여 ‘산업 생존’ ‘산업 합리화’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존속은 그 자체가 국가경제의 낭비이며, 다른 새로운 성장 산업의 성장 기회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 학계, 정부 각자 가지고 있는 판단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 구조적 불황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 국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일곱째, 건축 수주 급감을 방지하고 SOC 예산 재조정을 통해 경제가 ‘건설투자 절벽’ 충격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건축 부문의 경기 급랭 가능성에 대응하여 정부의 부동산 경기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 확보와 세심한 주의를 통해, 수주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SOC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분배 중심의 재정지출 기조상 복지 분야 지출을 늘리기 위해 SOC 같은 성장 관련 분야의 예산 축소가 필요한 것까지는 납득이 되나, 지금과 같은 수준의 급격한 SOC 예산 감축은 경제에 과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보임
- 따라서 SOC 예산에 대한 감소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조정 과정시
 - ① SOC 적정 수준에 대한 판단은 소수 연구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분석과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며,
 - ② 업계, 학계 등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여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임

여덟째, 주력 산업의 성숙화에 따른 역동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젊은산업'의 발굴과 관련 시장의 적극적 육성이 시급하다.

- 최근 고성장을 하는 분야는 최첨단의 하이테크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진 기술들에 대하여 비즈니스에 부합되는 조합 및 응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효용을 창출하게 하는 분야임
- '기술이 반드시 시장이나 산업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기술과 시장은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신성장 동력은 신기술이 아니라 기술로 구현되는 고성장 시장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젊은산업'은 모든 정부가 저마다 제시하는 신기술·신성장 분야가 아니라, 시장에서 검증되고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어야 함
- 따라서 신성장 동력 육성 정책의 대상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은 연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장과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임

【 參考文獻 】

□ 문헌 자료

기획재정부(2017),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2017. 8. 29)”, 보도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6), 「우리기업의 신사업 추진실태와 시사점 조사」 .
한국은행(2016), 『2014년 산업연관표』 .
중소벤처기업부(2017),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2017. 11. 2)”, 보도자료.
IMF(2017),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7)』 .

□ 통계자료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벤처인 (www.venturein.or.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IMF (www.imf.org).
OECD (stats.oecd.org).
World steel (www.worldsteel.org). **HRI**

< 연구자 >

주 원 이사대우 (juwon@hri.co.kr, 02-2072-6235)

신유란 연구원 (yooran0111@hri.co.kr, 02-2072-6240)